

김정은, 김일성 25주기 금수산궁전 참배

2017년 이후 2년만에
北 전역 추모사이렌·묵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참배 영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철세위인을 사무치게 그리며 추모하는 인민의 충정이 조국강산에 더욱 뜨겁게 차남치고 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도 낮 12시 방송에서 김 위원장 참배 소식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방문했다.

입상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김수길 군 총정치

국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중앙통신은 "참가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 높이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역세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의 자주의 혁명노선과 자력갱생의 전략을 틀어쥐고 전 인민적인 총진군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주체의 사회

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오에는 북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중앙TV는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이 평양 거리와 광장 등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묵념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버스 승객으로 보이는 주민들이 텅 빈 버스 앞에서 묵념했고, 선박 탑승객들은 선상에서 고개를 숙였으며 군인들도 모자를 벗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김 주석 사망일 당일 0시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작년에는 참배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짝지어지는 해를 의미하는 북한말)이라 김 위원장이 직접 참배하는 등 추모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이며, 김 주석의 사망일에 추모 사이렌이 울린 것은 2014년 20주기 행사 이후 5년만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9〉 시영

시영(柴榮, 921-959)은 오대 시대 후주의 2대 황제로 오대 최대의 명군으로 평가된다. 시영은 호북성 형주 출신으로 부친은 시수였다. 작은 고모가 후주를 창건한 광위와 결혼함으로써 광위는 고모부가 되었다. 자식이 없던 광위 부부는 시영을 양자로 삼았다. 어릴 때부터 고모집에서 자랐는데 고전, 역사 및 황로사상을 전수받았다. 후한의 고조 유지왕이 948년 사망하고 둘째 아들 유승우가 승계하니 은제다. 호국 절도사 이수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추밀사 광위가 이를 평정했다. 은제는 오히려 광위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군대를 일으켜 수도 개봉으로 진군했다. 956년 개봉에 입성하자 고조 유지왕의 조카인 무녕절도사 유변을 황제로 밀었다. 그러나 요나라가 남하하는 등 상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또한 강력한 절도사의 횡포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은 세금감면, 토지개간, 치수에 노력을 기울였다. 관료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억제했다. 955년에는 억불(抑佛) 정책을 펴 백성이 구분별하게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많은 사찰을 폐지하였다. 불상·동기 등은 몰수해 동전을 주조했으며 사찰사 및 황로사상을 전수받았다. 후한의 고조 유지왕이 948년 사망하고 둘째 아들 유승우가 승계하니 은제다. 호국 절도사 이수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추밀사 광위가 이를 평정했다. 은제는 오히려 광위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군대를 일으켜 수도 개봉으로 진군했다. 956년 개봉에 입성하자 고조 유지왕의 조카인 무녕절도사 유변을 황제로 밀었다. 그러나 요나라가 남하하는 등 상

세종은 고평 전투 이후 천하를 평정할 뜻을 세웠다. 군신들에게 명해 임금과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음을 논하는 글 위군난위신불이론(爲君難爲臣不易論)과 변방을 개척하는 책략 개변책(開邊策)을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비주남중 왕박이 책문을 올렸다. "무릇

후주의 2대 황제, 오대 최대 명군

황이 급변하자 황제로 옹립되니 후주의 태조다. 태조는 시영에게 단주를 통치토록 하였다. 이어 진왕으로 봉하고 시중 판내외병마사를 겸임하게 했다. 진왕이 병권을 장악하면서 조정 안팎과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 954년 태조가 3년만에 병사하자 2대 황제 세종으로 즉위했다.

태조가 사망하자 북한의 유승이 후주를 멸하기 위해 요의 원군을 빌어 3만의 병력으로 침공하였다. "유승은 우리의 국상을 다행으로 여기고 짐이 어리고 새로이 즉위한 것을 가벼이 여겨 천하를 삼킬 마음이 생겼다. 반드시 친히 올 것이다. 짐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 진정에 나섰다. 고평 전투에서 조광윤의 분전에 힘입어 북한군을 대파했다.

처음에는 북한군의 공격에 밀렸으나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시체가 산과 들에 가득했고, 많은 군대의 짐과 무기, 말 등이 길에 버려졌다. 싸움터를 이탈한 장군 번애능 등 70여명을 체포해 참수하여 기강을 바로 잡았다. 전투에 동원된 군사들이 대부분 늙고 병약했다. 군대 개혁에 나서 정예한 자는 상군으로 올리고 병약한 자는 내쫓았다. 용맹한 자를 선발해 조광윤을 책임자로 하는 전전제반(殿前諸班)을 만들었다. 이후 후주의 군대는 날쌔고 용맹해

공격해 빼앗는 방법은 반드시 쉬운 곳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실을 치도록 하였다. 이어 진왕으로 봉하고 시중 판내외병마사를 겸임하게 했다. 고약한 곳을 공격해야 합니다. 강북을 얻고 나면 강남 또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동만은 은혜와 신의로 회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한 병사로 그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공취(攻取)의 길은 반드시 쉬운 곳부터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일 대업에 나섰다. 우선 후축을 공격해 감숙성 천수현과 섬서성 봉현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남당을 공격해 강북 땅을 취했다. 955년 거란을 공격해 호북성 익진관과 외교관을 취하고 후진이 거란에 할양한 연은 16주 가운데 막주와 영주를 얻었다. 그러나 유주를 취하기 전에 병을 얻어 959년 6월 3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군을 다스릴 때는 군령이 엄해 사람들이 감히 어기지 못했다. 부지런히 정사에 임했고 한가하면 학자를 불러 전대의 역사를 상고하였다. 신하가 과오가 있으면 면전에서 책망하였으나 반성하면 용서하였다. 공은 후하게 포상했다. 문무를 섞어서 등용했다. 그러나 법을 너무 엄격히 집행했고 재능 있는 자라도 관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임종하자 많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리스 '父子 총리' 예약 미초타키스 시장친화 정책 예고

7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신민당)이 압승을 거둬 따라 그리스에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친 부자 총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새 총리 자리를 예약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51) 신민주당(신민당) 대표는 그리스 보수파의 거두로 1990~1993년 총리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 전 총리의 아들이다.

2017년 98세를 일기로 별세한 변호사 출신의 아버지 미초타키스 전 총리는 1946년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2004년 은퇴 때까지 반세기 넘게 경제 장관, 외교 장관, 총리를 두루 지내며 생전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아버지가 1984년부터 10년간 당수를 지낸 신민당을 2016년 1월부터 이끌어 온 아들 미초타키스도 당 대표로 처음 지휘한 총선에서 완승을 일궈내며 대를 이어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그의 누이인 도라바코안니스 역시 여성 최초의 아테네 시장, 외교 장관을 역임했고, 그녀의 아들인 코스타스 바코안니스는 지난달 아테네 시장으로 당선돼 그의 가문은 3대째 정치 명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도 최고치... 대선 양자대결선 바이든에 밀려”

WP-ABC 공동 여론조사
지지도 44%로 취임 이후 최고

경제 호황에 힘입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현지시간) 나왔다. 그러나 잠재적 라이벌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두 자릿수로 밀리는 등 대선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달 28일~이달 1일 1008명의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공동 조사(오차범위 ±3%),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연령 미국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4%를 기록, 지난 4월의 39%에서 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재임 기간 최고치라고 WP는 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였다.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47%로 투표연령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 높았다. '반대'는 50%이었다. 4월 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들의 경우 지지도가 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였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54%였다.

WP는 "탄탄한 경제와 비교적 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식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대통령답지 못하게 행동해왔다고 답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등록 유권자들을 대

으로 한 민주당 대선주자 5인방과의 일대일 가상 대결 조사에서 한 명도 이기지 못했다. 패하거나 비기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에서 선두를 달리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43%대 53%로 10% 포인트 차이로 뒤처졌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카밀라 헤리스 상원의원과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48% 대 49%, 46%대 48%로 밀렸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